

감정결과서 문건명

연번	감정 문건명	비고
1	노동자와 통일 6호	
2	이론과 실천 창간준비 1호	
3	이론과 실천 창간준비 2호	
4	5.18 교양자료	
5	민주노동당을 강화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6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	
7	다함께	
8	2001 새내기 진보정치학교	
9	민주노동당 통일방안	
10	노동자의 힘	
11	민주노동당 고려대학교 학생위원회 규칙 제정	
12	일하는 사람의 희망.....//	
13	신입당원 교육자료집	
14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	
15	정치학교 -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천주체양성	
16	전투병 파병반대 국민투표 실시하라	
17	민주노동당을 강화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18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19	노동자와 통일 6호	
20	민주노동당 창당 그리고 자유를 위한 선전	
21	2003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하여	
22	불잉겔	
23	전면적 혁신, 비약적 혁신	
24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자	
25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당적실천을 위하여	
26	충성의 편지 외	
27	대학 대학생 그리고 학생운동	
28	오시라 평양으로	
29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	

1. 對 象

가. 文 件 名 : “ 노동자와 통일 6호 ”

나. 作 成 者 :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총 홈페이지 tongil. nodong. org (2002. 5.)

2. 分 析**가. 概 觀**

본 문건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통일위원회에서 발행한 ‘노동자와 통일’이라는 제목의 소식지로서, 학살과 전쟁책동, 통일방해, 독재정권 지원, 경제약탈, 문화침략, 미군범죄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패퇴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투쟁’을 제기하고 있는 한편, 현 정권에 대해 광주를 팔아 집권하면서 다시 한번 광주를 죽게 만들었다고 비방하고, 나아가 현 대통령에 대해 광주혁명정신을 외면하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민중을 보호하지 않고 그 이윤추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미국에 대해 아부와 굴종의 정치 행태를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問題內容 分析

1) 학살과 전쟁책동, 통일방해, 독재정권 지원, 경제약탈, 문화침략, 미군범죄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패퇴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투쟁’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장된 반미자주화투쟁은 바로 북한의 대남투쟁 3대좌표 중 하나로서,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반미자주화투쟁과 같은 맥락이다.

“이제 학살 책임자인 미국에 대해 보다 분명한 ‘반미자주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광주에서 미국이 저지른 만행은 물론 통일의 훼방꾼이요, 해방이후 반세기 넘도록 미국이 이 땅에서 저지른 학살과 전쟁책동, 통일방해, 독재정권 지원, 경제약탈, 문화침략, 미군범죄 등 무수한 죄과를 밝히고 이 땅에서 미국을 패퇴시키는 일에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1면 하단)

2) 현 정권에 대해 광주를 팔아 집권하면서 다시 한번 광주를 죽게 만들었다고 비방하는 한편, 현 대통령에 대해 광주혁명정신을 외면하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민중을 보호하지 않고 그 이윤추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미국에 대해 아부와 굴종의 정치행태를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정권을 친미파쇼정권, 사대매국정권, 반민중-반민주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 000 정권은 광주를 팔아 집권하면서 다시 한번 광주를 죽게 만들어 여전히 광주는 ... 000은 광주의 혁명정신을 외면하였다. 더 나아가 민중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자국의 민중을 보호하기보다는 그 이윤추구의 앞잡이 노릇을 툭툭히 하고 있다. 또한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하고 ... 노동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등 정당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에 대해 집권기간 내내 적대적으로 탄압하면서도, 광주학살의 진짜 배후이며 주범인 미국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아부하고 굴종하는 정치 행태를 일관해왔다.”(1면 중단)

- 이 하 여 백 -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살과 전쟁책동, 통일방해, 독재정권 지원, 경제약탈, 문화침략, 미군범죄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패퇴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투쟁'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장된 반미자주화투쟁은 바로 북한의 대남투쟁 3대좌표 중 하나로서,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반미자주화투쟁과 같은 맥락이다.

2) 현 정권에 대해 광주를 팔아 집권하면서 다시 한번 광주를 죽게 만들었다고 비방하는 한편, 현 대통령에 대해 광주혁명정신을 외면하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민중을 보호하지 않고 그 이윤추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미국에 대해 아부와 굴종의 정치행태를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정권을 친미파쇼정권, 사대매국정권, 반민중-반민주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본 문건은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반미자주화투쟁을 제기하고 있는 한편, 현 정권과 대통령에 대해 친미파쇼정권, 사대매국정권, 반민중, 반노동자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 활동에 그대로 동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것을 선전하고 있으므로, '容共'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2 年 6 月 19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문 건 명 : 이론과 실천 창간준비1호

나. 작 성 자 : 황 광 우 외

다. 발행처(일) : 민주노동당(2001. 2.1)

2. 分 析

가. 개 관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의 정책이론지인 《이론과 실천》 창간준비 1호로 수편을 특집 및 기획기사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중 아래 지적한 내용들은 맑스주의와 북한의 대남노선을 정당화하고 선전하고 있는 글이다.

나. 문제점

첫째, '통일: 미국의 위협과 평화로의 진전'(김영욱)에서 김정일의 담방의의를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한 반북냉전체제의 종식 △ 연방제통일의 결정적 전환점 등으로 규정하고 자주적 연방통일의 지향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의 대남노선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연방제통일'을 정당화하고 선전하는 것이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은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한 반북 냉전체제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은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조성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확고히 다지고 자주적 원칙에 입각한 연방제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민족대단결을 통해... 6.15 공동선언으로 시작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공공히하고 자주적 연방통일로 밀고 나가는가 못하는가를 좌우한다는 것이다”(40면)

둘째, '4월 혁명에서 민주노동당까지 민족해방의 한길'(임동규)에서 북한과 연계된 지하당사건인 인민혁명당, 통일혁명당, 남민전사건 등을 정당화하고, 관련자들의 혁명투쟁을 미화하고 있다.(48-71면) 이는 결국 북한의 대남 지하당공작을 합리화하고 동조,선전하는 것이다.

셋째, '공산당선언을 읽자(1):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황광우)에서 ① 맑스·엥겔스의 「공산당선언」에 대한 학습을 주장하고 있고 ② 공산당선언에서의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 선동주장을 지지선전하며 ③ 자본주의체제가 존재하는 한 마르크스에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산혁명 전략지침서이며 마르크스주의사상의 원조인 「공산당선언」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결국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계급투쟁에 의한 공산주의혁명을 고무선동하는 것이다.

“...<이론과 실천>은 공산당선언 학습을 권유한다... 내가 걷고 있는 이길이 옳은 길인지, 아니 내가 걷고 있는 이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길인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길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준 이가 있으니 그가 곧 칼 마르크스이며 인간역사의 그 복잡하고 다기한 여정을 가장 간명하게 보여준 글이 그의 공산당선언이다...중략... 자본주의체제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한 ... 모든 인간들은 마르크스에게 배워야 한다...”(93-94면)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고 말한 공산당선언의 제1성은 ... 사상사에 있어서 일대 혁명이었다... 마르크스는 마치 대붕처럼 역사의 하늘 높은곳으로 속구쳐 올라 2500년 동안 흘러온 역사의 강줄기를 내려다 본것이다...”(99-100면) 의

넷째, '메항리투쟁: 최초의 범국민적 반미자주화투쟁'(정형주)에서 ① 한국사회를 의세(미국)에 의해 정치,경제,군사,문화적으로 종속된 사회로, 현정부를 반민족 반민주적 정권 등으로 매도하고 ② 메항리투쟁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투쟁' 등 반미자주화투쟁을 대중화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이는 현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의 핵심적인 대남투쟁노선인 '반미자주화투쟁'을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이다.

“우리민중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세에 의해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장악되어 있고 조국이 분단되어 있으며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김대중정권에 의해 민주주의

를 직박하고 있기 때문이다...신자유주의 저지, 반미자주화투쟁의 승리는 전체 민중의 문제이며 노동자 민중들의 유일한 희망이다...중략... 매항리투쟁의 승리는 반미투쟁의 대중화에 있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반미투쟁 승리의 돌파구를 만들어 가자....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민주노동당 결의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102-107면)

3. 總 評

이 문건중 위 부분은 △ 북한의 대남노선인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자주화투쟁”을 정당화하고 △ 공산혁명 지침서인 공산당선언을 정당화하고 이의 학습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북한의 대남노선 및 공산혁명노선을 합리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인바, 이 문건중 위부분은 용공성(容共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1 年 4 月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印)

1. 對 象

가. 문 건 명 : 이론과 실천 창간준비2호

나. 작 성 자 : 황 광 우 외

다. 발행처(일) : 민주노동당(2001. 3. 5)

2. 分 析

가. 개 관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의 정책이론지인 《이론과 실천》 창간준비 2호로 수편을 특집 및 기획기사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중 아래 지적한 내용들은 맑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노선과 북한의 대남노선을 정당화하고 선전하고 있는 글이다.

나. 문제점

첫째, '민주노조운동에 할 말있다'(장원섭)에서

① 노동자계급의 사명이 사회의 억압과 착취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여 노동해방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혁명의 주력군으로 노동자계급을 위상짓는 시각이며

② 노동자계급이 진보적 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의 진보적 사상이란 이 글의 논조로 보아 맑스주의를 의미하며

③ 한국사회를 외세와 소수반동에 의해 지배되는 기형적 자본주의사회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남한사회평가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④ 노동자들의 반미자주화투쟁과 조국통일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자주,민주,통일)중 자주(반미자주화)와 통일(연방제 조국통일투쟁)을 고무하는 것이다.

“ 노동계급의 역사적 사명은 자기자신을 해방시키는 것과 함께 사회의 모든 억압과 착취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여 모두를 해방시키는데 있다...중략... 선진노동자들부터 노동계급의 진보적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이를 전 노동계급속으로 과감히 확산시키자.... 우리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전민중의 지지를 획득하여 영도계급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반미 자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에 노동계급이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50-54면)

둘째, ‘학생운동과 진보정당운동’(장석준)에서 ① 사회주의지향의 1980-90년대 학생운동의 역할을 정당화하고 ②향후 학생운동이 자본주의를 넘는 민주주의-사회주의의 전망을 지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 자본주의노선을 부정하고 사회주의노선을 정당화하며 고무하는 것이다.

“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한국학생운동은 사회주의 이념을 분명히 하면서 반제민족자주, 반파쇼민중민주주의라는 양대변혁 강령을 다져 왔다...학생운동은... 사회주의 이념의 복원, 학생운동가들은 가장 철저한 반제반파쇼사상으로 이해된 사회주의이념을 복원하는데 앞장섰다...중략... 학생운동은 자본주의의 현재상태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사회주의의 전망을 다듬어야 한다...”(64-67면)

셋째, ‘공산당선언을 읽자(2)’ (황광우)에서 ①맑스·엥겔스의 「공산당선언」에 대한 학습을 주장하고 있고 ②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멸망을 강조하고 ③ 사회주의혁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산혁명지침서인 「공산당선언」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결국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혁명을 고무선전하는 것이다.

“ ...사상의 폐허에서 맑스를 다시 읽는 것은 어찌 보면 행운일지 모른다. 우리가 맑스를 다시 읽는 것은 유행이 아니다 ... 중략...맑스의 기술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역시 특정한 조건에서 생성하여 변화,발전하다가 언젠가는 사멸하는 한 시대의 사회제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공산당선언을 우습게 아는 자칭 사회주의자들이 참 많다. 나는 이분들에게 공산당선언에 서술된 유물변증법의 사고방식을 잘 배워 조금이라도 현실을 변화시키는 실천에 매진해줄 것을 권유한다.... 중략... 1848년 공산당선언이 공개된 이래 본격적인 사회주의운동이 시작되었다...당대에 혁명을 성공시키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이뤄보려는 혁명가들의 급한 마음을 어찌 할수 없는 것인가”(86-95면)

넷째, '공산당선언을 읽자(2): 한번 더 읽기'(장석준)에서 「공산당선언」의 내용중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는 명제를 재해석하며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96-103면) 이는 공산주의혁명의 정치이론중 핵심인 계급투쟁론을 고무선전하는 것이다.

3. 總 評

이 문건중 앞서 지적한 부분은 △ 북한의 대남노선인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고 △ 학생운동의 사회주의 지향성과 공산혁명 지침서인 공산당선언의 학습을 주장하며 이를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북한의 대남노선 및 공산혁명노선을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인바, 이 문건중 위부분은 용공성(容共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1 年 4 月 13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5.18교양자료 ”

나. 作 成 者: 불명

다. 發 行 處(日): 상동 (2004. 5)

2. 分 析

가. 概 觀

본 문건은 '5.18교양자료'로서, 80년 5.18항쟁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한반도의 관계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이라크 파병 강요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비방하고 있다.

나. 問題內容 分析

1) 80년 5.18항쟁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한반도의 관계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를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성이 차는 제국주의 나라이다. 그러하기에 세계 전도를 핏자국을 물들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반도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80년 5.18항쟁은 바로 그러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의 관계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1쪽)

2) 이라크 파병 강요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비방하고 있다.

“저들이 자신들의 세계지배를 위해 일으킨 이라크 전쟁에 우리 친구들이 끌려가고 있다. 파병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저들의 전쟁에 우리 젊은이의 피를 앗아가고 있다. ... 미국이 한반도 땅에서 벌인 범죄행각을 민중의 힘으로 심판하고, 이 땅 한반도가 미국의 야욕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3쪽)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80년 5.18항쟁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한반도의 관계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 2) 이라크 파병 강요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비방하고 있다.

본 문건은 위와 같이 단순 반미차원에서 5.18항쟁에 관한 미국의 배후설을 거론하면서 미국 비방을 하고 있는 등의 일부 내용 중에 친북 시각이 표출되어 있으나 북측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표현이 없음. (문제삼기 어려움)

2004 年 5 月 31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을 강화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나. 作 成 者 : 불명

다. 發 行 處(日) : 불명 (내용상, 2000년의 시점)

2. 分 析

가. 기본성격

분석의 대상은 <민주노동당을 강화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라는 제목하의 내용이다. 위의 대상에서 언급한바, 작성자와 발행처는 불명이다. 그러나 언급된 문건의 내용에 의거할 때, 김대중대통령 시기인 2000년의 시점에서 창당을 전제하여 출발했던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단체 지향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문건의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김대중정권 하의 한국 정치체제의 골간에 해당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단순한 비판에 그치는 내용이 아니다. 기본적인 전제로서 원론적인 관점이긴 하나 자본주의중심 한국의 김대중정권의 정치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共產主義的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를 중심 한국정치체제를 '근본적 모순'의 상태로 규정하며, 전체는 현재의 자본주의 중심의 한국사회의 체제 자체를 변혁하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예로 들며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나. 세부분석

1)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단체 지향의 정당의 추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현재의 정치체제의 골간에 해당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한국사회 소외계층의 지위를 신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서술하고 있다. 원론적인 관점이나, 자본주의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긍정적인 내용에서 출발하고 있다. 내용의 시작 자체는 문제점이 없다.

p.1의 <질문 1. 민주노동당 활동.....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의 제목하의 내용 전체 (구체적으로 p.1 상단의 첫째 항의 내용 전체.)

2) 위 주장의 연장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사회 변혁을 주장하고 있다. 외형상 억압받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단체 지향의 정당의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문제점의 잘못에 대한 수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근본적 모순의 혁파'를 목표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pp. 2-3의 <질문2, '민주노동당'은 자칫하다..... 것 아닙니까?>의 목차하의 내용 전체. 구체적으로 5-8행 : "진보정당의 개량화(자본주의를 극복하려 하지않고, 소극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를 좀 좋은 자본주의로 만들면 노동자가 좀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경향)될 것이 두려워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주장은 아니지만 소심한 태도입니다."의 내용.

3) 구체적인 시기 구분없이 한국의 상황을 경제위기라고 지칭하면서, 그 자체는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김대중정부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적 경제위기 자체는 자본주의 위기이며, 공산주의의 몰락과는 관계없이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신자유주의로 위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자체의 부정을 전제하는 투쟁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사회의 정치체제에 대한 계급모순 관점의 근본적인 부정이다.

pp.3-5의 <질문 3. 또 위기가 온다고무엇입니까?/ 질문4.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대안은 무엇입니까?>의 내용 전체.

4) '민주노동당'의 조직 형성과 그것의 활동과 관련 조직의 목적에 대한 언급의 내용이다. 이른바 외형적 측면에서 진보와 민중의 해방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알게 해준다. 현재의 자본주의 중심의 한국사회 체제자체를 부정하는 투쟁의 활성화가 목표임을 알 수 있다.

pp.5-6의 <민주노동당과 함께 노동해방을 쟁취합시다.>의 내용 전체.

3. 總 評

작성자와 발행처 불명의 <민주노동당을 강화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라는 제목하의 내용을 분석했다.

위의 기본성격과 세부분석에서 언급한바, 작성자와 발행처는 불명이다. 그러나 언급된 문건의 내용에 의거할 때, 김대중대통령 시기인 2000년의 시점에서 創黨을 전제하여 출발했던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단체 지향의 단체의 창당의 목적과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문건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資本主義를 중심 한국정치체제와 세계정치경제의 중심체제를, 공산주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투쟁으로 변혁 실천해야할 근본적 정치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서 자본주의 자체는 '근본적 모순'의 상태로 규정하며, 전체는 현재의 자본주의 중심의 한국사회의 체제 자체를 변혁하자는 내용이다.

위 주장의 연장선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사회변혁을 주장하고 있다. 외형상 억압받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선전하고있다.

그러나 실상은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단체 지향의 정당의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문제점의 잘못에 대한 수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자본주의 중심의 한국사회의 변혁이 목표인 문건이다.

전체는 PDR과 관점의 공산주의 사회추구의 <용공>의 내용인 문건이다.

2003 年 5 月 9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기관지창간준비호)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서울대학생위원회(전)

다. 發 行 處(日) : 상동.2002. 2.6

2. 分 析

1. 상기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에서 작성한 유인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2. 현재의 정세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1-7쪽),
3. 민주노동조합과 진보정치운동 및 민중연대는 이러한 정세에 대응하여 투쟁의 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 싸워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8쪽).
4. 나아가 2002년 민주노동당을 혁신/강화하여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할 것을 선전선동하고 있음(9-10쪽).
5. 공공부분의 투쟁이 “신자유주의 정권인 김대중정권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는 투쟁이 될 수 있다”라며 반정부 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음(11,26,28쪽).
6. <강령읽기-경제편>에서 먼저 “경제강령의 큰 슬로건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의 수립’이다”라고 전제하고, 이어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22-24쪽)“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

7. 이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적소유제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음.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1.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에서 작성한 유인물로, 현정부가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불만과 분노를 사고 있다며 현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2. 나아가 민주노동조합과 진보정치운동 및 민중연대가 이러한 정세에 잘 대응하여 투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3. 민주노동당을 혁신/강화하여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역설하고 있으나,
4.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적소유제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5.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용공성향의 유인물로 사료된다.

2002 年 3 月 15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다함께

나. 作 成 者 : 이정구 등 다수

다. 發 行 處(日) : 불명(내용상, '다함께 편집부' 2002. 1.)

2. 分 析

가. 기본성격

月刊 잡지의 형태로 發刊되는 '다함께'라는 제목하의 문건의 내용이 분석의 대상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發行處와 출판사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문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함께' 라는 잡지 출판부에서 월간으로 발간하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된 '다함께'라는 제목하의 문건은 <야망과 희망>이라는 편집자의 머리말을 필두로 하여 총 20여편의 각각 다른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제목하의 경우는 특별한 이념적 문제점이 없는 단순 示唆的 내용이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비판의 내용이 그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의 내용에 한해서는 細部分析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세부분석에서 다룰 내용의 경우는 한국사회와 현재의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 階級矛盾의 관점에서 체제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다른 내용도 유사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나. 세부분석

1) 민주화 된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부' 體制에 대해서 사실상의 관점에서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프칸 전쟁의 예를 들어서 김대통령이 미제의 하수인의 역할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의 制定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태의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주장들에 대한 복합적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국내의 좌파들의 경우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抵抗을 투쟁으로 전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비판의 내용이 아니다. 한국과 현정권에 대한 체제부저의 내용이다.

p. 3의 <야망과 희망>의 내용 전체.

p. 10의 <민주주의 대한공격>의 내용 전체.

pp. 20-22의 <김대중, 선거, 진보진영의 도전>의 내용 전체.

2) 미국의 경우 그리고 서방에서는 아프칸 텔레반 정권의 붕괴로 인하여 여성이 解放되었다고 하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제국주의가 붕괴해야 여성의 해방이 온다는 관점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자본주의는 스포츠 자체를 생산의 논리로 변질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공산주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pp. 8-9의 <아프칸니스탄 여성은 해방되었는가?>의 내용 전체.

pp. 18-19의 <월드컵, 스포츠, 자본주의 >의 내용 전체.

3) 전북대 교수 강준만의 노무현의 지지에 대한 시시비비 평가의 내용이다. 일단 반 김대중의 관점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국사회의 진보진영의 경우는 당선과는 관계없이 진보진영의 支持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계급모순 관점의 계투 변혁투쟁의 정당화의 내용이다.

pp. 23-25의 <강준만 교수의 '비판적 지지'를 둘러싼 논쟁>의 내용 전체.

4) 資本과 세계화에 맞서는 국제연대의 결성과 투쟁의 活性化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 한국이 외국 노동자의 이주와 취업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는 비판의 관점이다.

실체는 階級矛盾에 의한 변혁투쟁의 원론적 지지다.

pp. 28-29의 <이주와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라>의 내용 전체.

5) 크리스마스 축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혁명가로서 예수는 미흡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민중해방의 기수정도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자체를 공산주의 혁명투쟁의 연장선에서 보는 원론적 내용이다.

pp. 36-37의 <크리스마스 해방>의 내용 전체.

3. 總 評

月刊 雜紙의 형태로 발간되는 '다함께'라는 제목하의 문건의 내용을 분석했다. 여기서 말하는 '다함께'라는 제목하의 문건은 위의 기본성격에 언급한바, <야망과 희망>이라는 편집자의 머리말을 필두로 하여 총 20여편의 각각 다른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위의 기본성격과 세부분석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부는 단순한 時事的 차원의 내용도 있다. 그러나 세부분석에서 언급한 내용의 경우는 한국사회와 현재의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 階級矛盾의 관점에서 체제자체를 부정하는 측면의 내용이다. 총괄적으로 계급모순에 의한 변혁투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위의 세부분석에서 다른 내용의 경우는 PDR과의 <용공>의 문건이다.

2002 年 1 月 29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1. 對 象

가. 文 件 名 : 『새내기 2001 ²⁰진보정치학교』

나. 作 成 者 : 서울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준)

다. 發 行 處(日) : 상동 (2001)

2. 分 析

가. 概 觀

본 문건은 서울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준)에서 발행한 ‘새내기 2001 진보정치학교’ 교육용 자료집으로서,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에 동참하라고 선전하고 있고,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계급과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으며, 가장 거대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해방과 자본가계급에게 수탈 당하며 살아가는 농민, 도시 서민의 해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을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국가로 비방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나. 問題內容 分析

1)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에 동참하라고 선전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는 것입니다. ... 노동자를 자본의 노예로 묶어놓는 이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면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는 것입니다.”(25쪽)

2)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계급과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으며, 가장 거대한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해방과 자본가계급에게 수탈 당하며 살아가는 농민, 도시서민의 해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투쟁론과 노동자해방론은 공산주의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존재 조건상 자본가 계급과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노동자 개인의 취향이나 정서와 무관하게, 노동자계급은 기존 체제에 대해 저항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진보적인 세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해방만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에게 수탈 당하며 살아가는 농민, 도시 서민의 해방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명을 갖습니다.”(20쪽)

3) 미국을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국가로 비방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 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하고 진정으로 호혜평등한 국제관계를 형성해 간다. 이를 위해 민노당은 …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28쪽)

- 이 하 여 백 -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에 동참하라고 선전하고 있다.
- 2)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계급과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으며, 가장 거대한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해방과 자본가계급에게 수탈 당하며 살아가는 농민, 도시서민의 해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투쟁론과 노동자해방론은 공산주의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 3) 미국을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국가로 비방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본 문건에서는 공산주의 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나아가 그것의 타파를 위한 계급투쟁을 선전, 선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위와 같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므로, '左翼'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3 年 8 月 1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노동자의 힘(준)>대표 박성인 동지에게 드리는 글
- 나. 作 成 者 : 황광우
-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2001. 4. 3)

2. 分 析

1) 개요

0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에서 발행한 『이론과 실천』 창간준비 3호에 게재된 7쪽 분량의 「노동자의 힘(준) 대표 박성인 동지에게 드리는 글」 논제의 글로서, 전반적인 내용이 평등연대 6호의 「2001년 정세와 노동자 민중의 과제」에서 밝힌 박성인의 대답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내용 분석

(1) 87년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민주노동당의 건설로 1차적으로 고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성인의 견해가 과거 지향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아직까지 당의 주도적 흐름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음.

< 예문 >

-87년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나는 민주노동당의 주요 간부이지만, 민주노동당을 주도하는 흐름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민주노동당은 크게 보면 80년대의 혁명적 노동운동속에서 단련된 당원들과 90년대의 노동조합 운동 소에서 성장한

당원들의 결집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들 모두들 하나의 노선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적 흐름이 아직은 없음을 밝힙니다. 주도적 흐름이 없는 민주노동당은 주도적 흐름을 형성시켜 나가야 하는 자기 과제를 갖는 당입니다...동지의 견해는 사태를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민주노동당의 주도적 흐름이 혁명적 민족주의가 될지, 혁명적 사회주의가 될지, 사회민주주의가 될지, 전투적 조합주의가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50쪽)

- (2) 박성인이 정치적 무책임으로 노동계급 조직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의 힘(준)이 자신의 강령을 공개해 나갈 것과 사회주의자들이 단결할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노동자의 힘(준)이 노동조합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노력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씨름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자의 정치조직이라면, 먼저 자신의 강령을 공개해야 합니다...강령은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 위에 작성되는 것이지...당면한 투쟁의 뒤를 따라 다니며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50-5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노동계급 조직들의 분열을 추동 하는 박동지의 주장을 듣노라면...노동계급의 해방을 열망하는 동지들끼리 사소한 차이를 두고서 하나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불행임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55쪽)

- (3) 노동계급의 해방을 촉구하면서, 맑시즘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단결할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나는 아직도 노동자계급의 사상은 맑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당 선언』 학습’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몰락하

고 지구상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이 현저히 축소된 오늘의 정세에서, 맑시즘을 힘있게 단결하여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 이상의 어떤 대안이 있을지요? (54-55쪽)

3. 總 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민주노동당의 건설로 1차적으로 고착되었다’고 주장한 박성인의 주장이 과거 지향적인 오류를 범하고 노동계급 조직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아직까지 당의 주도적 흐름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노동자의 힘(준)」이 자신의 강령을 공개해 나갈 것과 노동계급의 해방을 촉구하는 한편 맑시즘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단결해 나갈 것을 선전선동 하고 있는 용공성향의 범주에 포함되는 문건으로 분류된다. < 끝 >

2002 年 1 月 10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민주노동당 고려대학교 학생위원회 규칙 제정'

나. 作 成 者: 민노당 고려대 학생위원회

다. 發 行 處(日): 상동 (2002. 10. 9.)

2. 分 析

가. 概 觀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고려대학교 학생위원회의 규칙으로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을 민중을 억압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그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나. 問題內容 分析

1)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대안사회로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지향성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고려대 학생위원회는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1쪽)

2) 국가보안법을 민중을 억압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그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보법 폐지 주장은 바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1쪽)

3. 總 評

본 문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대안사회로서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지향성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2) 국가보안법을 민중을 억압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그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보법 폐지 주장은 바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본 문건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지향성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을 수용하고 그것에 동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것을 선전하고 있으므로, ‘容共’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2 年 12 月 30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일하는 사람의 희망.....//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 창당대회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 준비위원장 최송춘
 다. 發 行 處(日) : 상동 (2002년 11월 29일)

2. 分 析

가. 기본성격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의 내용은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 준비위원장 최송춘 등에 의해서 작성 배포된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의 결성과 관련한 창당대회 전체의 < 일하는 사람의 희망.....//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 창당대회>라는 제목하의 문건이다.

기본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의 성격은, 현재의 한국사회와 현재의 김대중정권의 체제를 共產主義 기본이론에 해당하는 '계급모순'의 관점에서 부정하는 측면에서 출발한다. 더불어서 勞動者가 중심이 되어 투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02년의 후반기에 창당과 더불어서 組織되는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이 투쟁의 중심이 되자고 주장하고 있다.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 자체는 구체적으로 현재의 한국사회와 김대중 정권 자체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급모순' 관점의 진보와 그에 따른 사회의 변혁을 꾀하는 민주노동당의 목포지구당의 창당과 관련 단순히 김대중정권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 주장이 아니다. 新自由主義에 根幹하는 현재의 김대중정권의 체제 자체에 비판과 부정의 내용이다.

전체는 共產主義 관점의 사회 변혁을 전제하는 矛盾論에 의한 階鬪 변혁투쟁의 전체의 원론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나. 세부분석

1) “자본의 신자유주의 경제 공세에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등 구조조정
의 벼랑에 몰리면서 생존권의 위협받고 있습니다.”(p.4의 중하단) 라는 전제하에서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과 함께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p.5의
하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진보와 그에 따른 社會變革을 꾀하는 민주
노동당의 목포지구당 창당과 관련한 내용이다. 단순히 현재의 김대중정권에 대한 비
판의 주장이 아니며, 신자유주의에 근간하는 체제 자체에 비판과 부정의 내용이다.

2) “민주노동당의 창당정신에는 지난 한 세기동안 이어져온 한국민중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평화통일, 평등사회를 향한 투쟁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p.6의 중 상
단)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서 현재의 정권을 포함하는 保守政治의 타파를 주장
하고 있다. (p.7)

이는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의 ‘창당선언문’의 내용의 일부이다. 단순한 민족적 차
원의 민족해방이나, 민주사회의 구현이 아니다. 공산주의 모순론에 의한 階鬪 변혁투
쟁의 실천 전제의 내용이다.

3)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의 조직 결성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 건설과 진보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과업을 목포에서 실천함을 그 목적
으로 한다.”(p.10의 상단)

위 주장의 연장선에서 체제부정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민주노동당 목포지
구당’ 결성의 목표의 설정에 대한 언급이다.

4)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에 국가 기간산업을 팔아넘기고 이땅 노동자 대부
분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현정권과 보수 기득권 세력들에게 우리
민중들의 대반격의 깃발을 올려야한다”(p.30의 중 상단)라고 ‘특별결의문’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본 문건의 일관된 맥락의 주장에 해당하며, 계투 변혁투쟁과 투쟁의 성공에 대한 의
지의 표명이다.

3. 總 評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 준비위원장 최송춘 등에 의한 <일하는 사람의 희망.....//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 창당대회>라는 제목하의 문건에 대해서 분석했다.

위의 기본성격과 세부분석에서 언급한바, 현재의 한국사회와 현재의 김대중정권의 체제를 부정하는 관점에서 勞動者가 중심이 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02년의 후반기에 조직되는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이 중심이 되자고 주장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의 한국사회와 김대중 정권 체제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진보와 그에따른 사회의 변혁을 꾀하는 민주노동당의 목포지구당의 창당과 관련한 문건이다. 단순하게 김대중정권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 주장이 아니며, 신자유주의에 근간하는 현재의 우리 정권의 체제 자체에 비판과 부정의 내용이다.

더불어서 민주노동당 목포지구당의 '창당선언문'의 내용에서는 민족적 차원의 民族解放이나, 민주사회의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공산주의 관점의 사회 변혁을 전제하는 모순론에 의한 階鬪 變革鬪爭의 전제의 원론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 전제의, 주사파와 ML파 관점의 투쟁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 <용공>의 문건이다.

2002 年 12 月 27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